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1호> 2017년 4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徳野)

국제정책과장으로 부임한 토쿠노(徳野)입니다. 오이타의 올해 벚꽃의 개화는 평년보다 늦어지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꽃놀이 시즌을 맞이합니다. 또한 국제정책과도 새로운 체제로 스타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변함없이 든든한 여러분들과 함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생생한 오이타의 정보를 매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 소식>

국제스포츠대회 사전캠프 유치

오이타현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팀의 사전캠프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자 펜싱 월드컵 그랑프리 베이징 대회’를 앞둔 지난 3월 13일~21일에 걸쳐 오이타시에서 4개국 합동 사전 캠프가 실시되었습니다. 리우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일본, 이탈리아, 미국, 우크라이나 각 국의 사브르 대표팀이 참가하여, 타국 선수와 시합을 하는 등 수준 높은 캠프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캠프지 오이타의 정보 발신 및 현내의 스포츠 진흥, 스포츠를 통한 교류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술문화스포츠진흥과】



OITA PEACE SYMPHONY 조회수 100만 돌파

2월에 공개한 베틀 아르헤리치 음악제와 오이타현 PR 동영상 ‘OITA PEACE SYMPHONY’가 공개된 이후 4주만에 YouTube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건을 돌파하여, 현재는 160만 건을 넘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feSRuQ3Jdb0>

메지론 해외특파원 소개 - APU 졸업생 김한성-



안녕하세요. 저는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를 졸업하고 4월부터 일본의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일하게 된 김한성입니다. 사진은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이타현의 메지론 해외특파원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에게 오이타현은 제 2의 고향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할 사람들, 맑은 자연, 일본 최고의 온천 등 오이타현에서 지낸 4년 간의 생활은 도시 생활만 해온 저에게 있어서 유학생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학생생활 4년간 저에게 몸과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곳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위해 오이타현을 떠나지만 제가 오이타현에서 살면서 느낀 수 많은 감동과 행복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메지론 해외특파원으로써 오이타현을 전 세계로, 전 세계를 오이타로 연결하는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1호> 2017년 4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규슈자연동물원 아프리카 사파리

이번 취재는 분고오노시의 국제교류원과 함께 아프리카 사파리에 다녀왔습니다. 오이타현 우사시 아지무마치에 위치한 규슈자연동물공원 아프리카 사파리는 일본 최대 규모인 면적 115만㎡에 이르는 넓은 고원에 70종 14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사파리 파크 형식의 동물원입니다.

벳푸역에서 아프리카 사파리행 버스를 타고 약 50분을 달리자, 거대한 코끼리 동상이 눈에 띄고 곧 아프리카 사파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는 사파리 전용 정글버스를 타고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동물존과 캥거루 등의 동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후레아이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먹이 주기 체험이 가능한 정글 버스에 탑승하여 초식 동물용 사료와 과일, 육식 동물용 고기가 들어있는 먹이통을 받고 동물존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먹이를 꺼내 들자 유유히 거닐고 있던 동물들이 버스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며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냥 신기했습니다. 또 고기를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사자의 박력 있는 모습과 그 먹이를 노리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야생 솔개까지 긴장감 넘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코끼리와 기린 등 늘 먼 발치에서 바라만보던 우리 속 동물들을 바로 눈 앞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고, 직접 먹이까지 줄 수 있어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정글버스에서 내려 원내를 구경하며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 주변에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원내 곳곳에 레스토랑 및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사파리의 오리지널 컵즈를 파는 상점도 있습니다. 이어 동물들을 만지거나 안아볼 수 있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는 후레아이존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물 중에서는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귀여운 기니피그를 안아보기도 하고, 미니어처 호스에게 당근을 주거나 다람쥐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후레아이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역은 ‘캥거루 만남의 숲’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캥거루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캥거루는 공격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온순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후레아이존과 별도로 유료시설이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 캣살롱과 도그살롱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각각 300엔으로,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내 고양이 붐으로 캣살롱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또 현재 시험 중에 있지만, 사진을 찍어 동물과 합성해주는 체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데이터 CD도 받을 수 있어, 실용화되면 아프리카 사파리에서의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야생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공간에서 박력 넘치는 야생 동물과 교류할수 있는 사파리는 물론, 동물들을 안아보거나 먹이를 주는 등 색다른 체험까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영업시간>

3월~10월 9:00~17:00

11월~2월 10:00~16:00

<입장료>

어른 2,500엔 /어린이1,400엔

(정글버스 이용료 별도)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1호> 2017년 4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규슈자연동물원 아프리카 사파리 Q&A

아프리카 사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획홍보과 스키야스씨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 이곳에 아프리카 사파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프리카의 대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에 풍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곳에 오실 때 유후다케가 보였을 텐데요. 당시 사장님께서 이곳에서 보이는 유후다케의 경치가 마치 킬리만자로의 풍경 같다 하여 여러 후보 중에서 이곳을 골랐다고 합니다.

2. 넓은 면적과 많은 동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스태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 한 마리 한 마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슴이나 기니피그처럼 개체 수가 많은 동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3. 동물을 관찰하기 좋은 기간이 있나요?

봄부터 가을까지를 추천합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는 새끼 동물들이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물론 동물의 종류에 따라 출산 시기가 다르지만, 골든위크(4월 말~5월 초) 전후로 아메리칸들소가 새끼를 낳고 그 이후 사슴들도 출산을 하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가 출산 시즌입니다. 또 여름에는 나이트 사파리를 운영하고, 가을에는 단풍들이 물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4.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아프리카 사파리만의 특별한 체험 등이 있나요?

원내에 캠핑존이 있습니다. 골든위크와 여름방학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캠핑존에서는 사자 구역도 보이는데요. 밤에 들리는 야생동물의 큰 울음소리 때문에 어린이들이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캠핑하는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캠핑을 예약하시면 정글 버스는 낮과 밤, 2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정글 버스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했는데, 동물들이 과식하게 되는건 아닌가요?

손님들이 정글 버스에서 주는 먹이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사자에게는 간식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이후에 따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에 사는 동물들은 넓은 대지를 걸어 다니며 충분히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찐 동물은 거의 없답니다.

6.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프리카 사파리는 야생 생태를 소중하게 유지하고 있는 동물원입니다. 광활한 고원에서 느긋하게 살고있는 동물들을 보며, 힐링과 평온함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